금주의 법구–〈법구경〉
분에 넘치는 이익을 바라지 말라.
넘치는 이익은 마음을 어리석게 한다.
적은 이익으로써 부자가 되라.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18호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12월 10일) 2023년 1월 1일 일요일



천년을 바로 세워 한국불교 중흥을

새해, 새날이 밝았다.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맞는 새해는 진정으로 여법한 시절이기를 바란다. 잘못되고 어긋난 것들을 바로 고치고 맞추어 눈물보다 웃음이 훨씬 많은 시절이 도래하기를 발원해본다. 새해는 천년을 거꾸로 지내온 경주 열암곡 마애불을 바로 모시는 불사에 더욱 많은 마음이 모여 잃어버린 천년을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발원한다. 그렇게 바로 세운 불상 하나가 많은 일의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부처의 얼굴에 햇살이 내려앉는 그날을 그려본다. 새해 첫 햇살 앞에 마애불을 세워본다. 간절한 발원이다. 또 염원이다. **글=박재완 기자 · 사진=현대불교신문 자료사진 그래픽**

마애불 바로 모시고 상월 순례 동력모아 韓불교 굴기 원년으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2023년 계묘년, 한국불교는 어느 때보다 역동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이 추진하는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 불사가 본격화되며, 장장 43일간의 상월결사 인도순례가 당장 2월부터 진행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31일 "간절한 서원으로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셔 천년을 세우기 위한 첫 걸음을 시작한다"고 선언하며 공식화된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 불사는 조계종 제37대 집행부의 주요 역점 사업이다. 현재 경주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 불사와 제37대 집행부 핵심사업들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직접 지휘하는 미래본부(舊 백년대계본부)가 전담한다.

마애불 바로 모시기의 슬로건인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 미래 천년, 천년을 세우다'로 확장됐다. '과거 천년'은 열암곡 마애불을 바로 모시는 불사를 의미한다. "열암곡 마애불을 바로 모시는 일은 천년을 세워 그 공덕으로 개인들은 서원을 성취하고 나라는 부강한 강대국의 위상을 확립하며 불교를 다시 중흥시키겠다는 신실한 원력"이 담겼다.

'미래 천년'은 진우 스님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명상센터 건립과 미래세대 포교 등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주요 불사를 말한다.

조계종 미래본부는 이 같은 사업들을 총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올해 4월 중에 완료할 예정이다. 추진위원회에는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를 증명으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위원장을 맡고, 교구본사 주지 · 중앙종회의원 · 주요신도단체장 · 명상 전문가 · 교계언론 등이 참여하는 범불교적 조직이 될 전망이다. 추진위는 사업에 따라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추진단과 미래추진단으로 분할돼 운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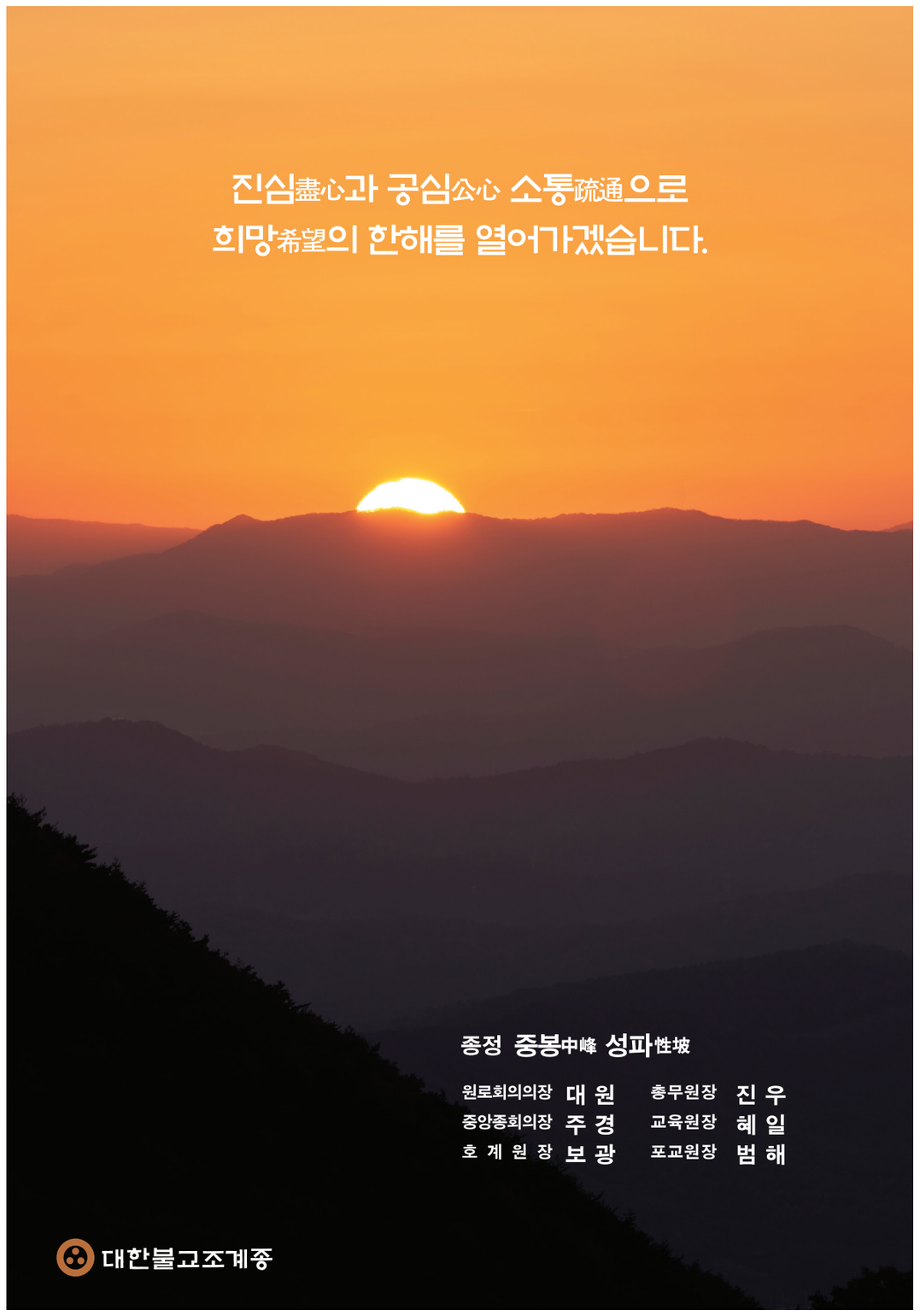
이에 앞서 조계종 미래본부는 1월 11일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들어간다. 준비위원회에는 종무기관장, 교구본사 주지, 중앙종회의장단 · 분과위원장, 교계언론 대표 등 140여 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우 스님 직접 지휘 미래본부서
마애불 입불, 명상센터 건립 추진
범불교적 추진위원회 구성 준비 중

성만제 미래본부 차장은 "주요 역점 사업인 마애불 바로 모시기는 준비위원회가 구성된 직후 기도법사단이 마애불 현장에서 기도정진에 들어갈 것"이라며 "또한 전국 사찰에서 열암곡 순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각종 연구 · 홍보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월결사 순례의 '화룡점정'이 될 인도순례도 한국불교 굴기를 상징하는 불사가 될 전망이다.

〈2면에 계속〉



2023년 신년특집호
A·B·C 섹션 76면 발행

신년특집 A9 · 10 · 11 · 12
MZ포교하는 MZ스님



상월결사 인도순례 C1~11



신년 불교동화 B5
신년 법어 B13 · 14 · 15
데스크초대석 A5
조계종 원로의장 대원 대종사



리더에게 聽하다 B1 · 2
박범훈 동국대 한국음악과 석좌교수

